



미 증시, 양호한 기업실적, 10년물 금리 하락에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4 일(화) 미국 증시는 코카콜라, 스포티파이, 제너럴일렉트릭 등 3 분기 기업 실적 호조, 국채 금리 하향안정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다우 +0.62%, S&P500 +0.73%, 나스닥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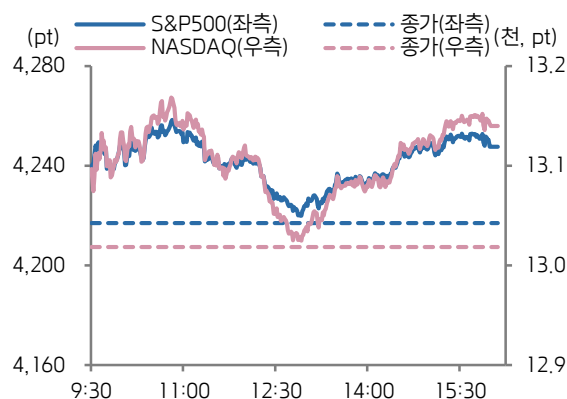
유로존 제조업 PMI는 43.0(예상 43.0, 전월 43.4), 서비스업 PMI 47.8(예상 47.8, 전월 48.7), 독일 제조업 PMI 40.7(예상 40.1, 전월 39.6), 서비스업 PMI 48.0(예상 50.0, 전월 50.3) 기록하며 기준선 하회 지속. 함부르크 상업은행(HCOB)은 "하위 지표도 몇 개를 제외하면 매우 일관되게 하향을 가리킨다"며 ECB의 통화완화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언급. 반면 미국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50.0(예상 49.5, 전월 49.8), 서비스 PMI 50.9(예상 49.8, 전월 50.1) 기록, 예상치 모두 상회.

유럽연합이 제 3국의 '경제적 강압'에 관세 인상 등의 카드로 대응할 수 있는 "강압 방지 조치(ACI·Anti-Coercion Instrument)" 법안을 최종 승인. 경제적 강압은 '제 3국이 EU나 EU 회원국을 향해 무역·투자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특정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으로 관세 인상, 수출입 허가 취소, 서비스 무역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 혹은 공공조달 제한 등의 대응 가능. 이 법안은 2021년 중국의 리투아니아 보복으로 추진된 만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

업종별로 에너지(-1.4%) 업종만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틸리티(+2.6%), 통신(+1.4%), 부동산(+1.2%)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코카콜라(2.88%)는 가격인상에도 판매 물량 증가로 순익 YOY 9%, 매출 YOY 8% 성장하며 예상치 상회, 연간 이익전망치를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강세. 제너럴일렉트릭(6.5%)은 항공부문 상업용 엔진 및 서비스 분야의 견조한 수요, 재생에너지 발전 및 해안 풍력에너지 사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3분기 매출 YOY 20%, 총 주문량 19% 증가했다고 밝히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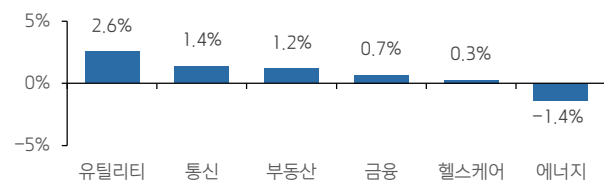
엔비디아(1.6%)는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대중 AI 칩 수출 규제 조치를 이번 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개장 전 상승폭을 축소. 발표일로부터 30일 유예한 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시행된 것이며, 이번 조치가 수익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1.69%)과 MS(0.37%)는 클라우드 부문에서 각각 부진과 호조를 기록하며 장외에서 -6.6%, 3.5% 기록 중.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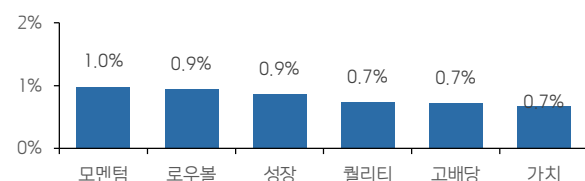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383.51	+1.12%	USD/KRW	1,342.92	-0.79%
코스피 200	318.43	+0.93%	달러 지수	106.27	+0.7%
코스닥	784.86	+2.77%	EUR/USD	1.06	+0.01%
코스닥 150	1,247.56	+3.17%	USD/CNH	7.31	+0%
S&P500	4,247.68	+0.73%	USD/JPY	149.86	-0.03%
NASDAQ	13,139.88	+0.93%	채권시장		
다우	33,141.38	+0.62%	국고채 3년	3.995	-6.5bp
VIX	18.97	-6.87%	국고채 10년	4.260	-11.5bp
러셀 2000	1,679.50	+0.82%	미국 국채 2년	5.112	+6.5bp
필라. 반도체	3,343.94	+1.38%	미국 국채 10년	4.823	-2.7bp
다우 운송	14,237.98	-0.01%	미국 국채 30년	4.938	-6.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065.37	+0.58%	WTI	83.8	+0.07%
MSCI 전세계 지수	643.90	+0.52%	브렌트유	88.07	-1.96%
MSCI DM 지수	2,801.96	+0.55%	금	1981.3	-0.24%
MSCI EM 지수	920.57	+0.31%	은	23.05	-0.31%
MSCI 한국 ETF	57.86	+1.31%	구리	363.1	+0.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42.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일에 이어 기술적 및 저가 매수세 유입 지속 여부 2. 중국 1 조위안 특별 국채 발행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중국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알파벳과 아마존간 엇갈린 실적 및 주가 차별화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연쇄 급락의 악순환이 중단되고 있는 모습. 향후에도 증시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겠으나, 그간 주가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낙폭 과대 인식 등으로 연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은 낮아 보임. 다만, 단기 반등을 넘어 진 반등 후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금리의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 전쟁 종식으로 지정학 불안이 소멸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11 월 FOMC 도 치러야 하고, 전쟁 뉴스플로우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이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긴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금주부터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 시, 주가 본연의 함수인 실적이 매크로나 지정학적 부담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일단 전일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 금주부터 차주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등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실적이 대기 중에 있음. 10 월 이후 대외 불안과 맞물리면서 코스피 12 개월 영업이익의 전망은 9 월말 248.8 조원에서 10 월 23 일 현재 248.6 조원으로 이익 개선세가 단기간 정체되긴 했으나, 이들 실적 통해 이익 전망 호전세가 재개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

미국에서도 금주부터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포함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 2 주동안 실적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의 비중은 S&P500 전체 기업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빅테크주의 실적 향방에 따라 미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

블룸버그 추정치를 토대로 살펴보면, S&P500 의 3 분기와 4 분기 EPS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0.7%, +6.3%로 집계. 하지만 테크기업들의 실적을 제외한 3 분기와 4 분기 EPS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2.1%, +4.4%, 시가총액 최상위 5 개 기업(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을 제외한 3 분기와 4 분기 EPS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5.2%, +1.2%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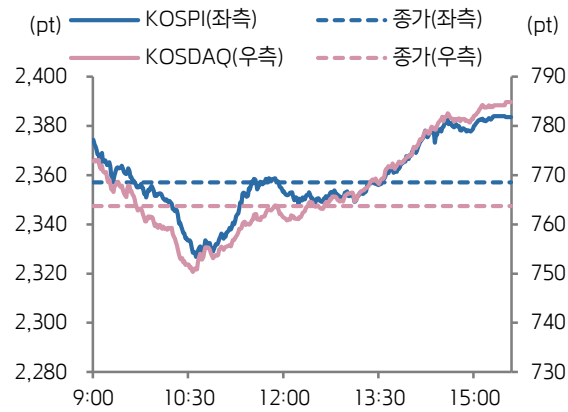
이는 테크기업과 시총 상위 5 개 기업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3 분기가 사실상 실적 바닥인 것은 변함 없겠으나, 4 분기 이후 이익의 변화 강도에 따라 증시의 반등 탄력이 달라질 수 있음 시사. 한국 증시 역시 중국, 일본 등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빅테크 실적 결과도 증시 대응 전략 수립의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수급 변동성 확대 등으로 1%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 금리 반락, 아시아 증시 강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급등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2.8%).

금일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 속 미국 금리와 국제 유가 하락, 3 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중국의 1 조위안 특별 국채 발행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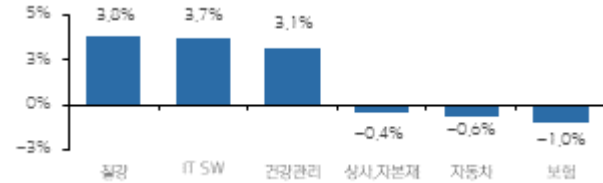
한편 전일 장마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1.7%)은 호실적(EPS, 1.55 달러 vs 컨센 1.45 달러)을 발표했으나, 세부 사업 부문 상 구글 광고 및 클라우드 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6%대 내외의 주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음.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PC 사업 호조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EPS 2.99 달러 vs 컨센 2.65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빅테크간 차별화된 실적을 발표한 만큼, 국내 증시의 업종관점에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업종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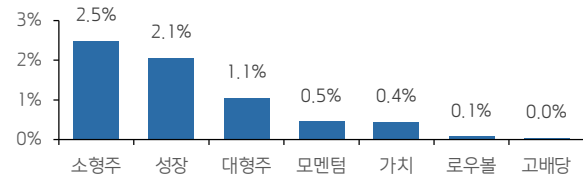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